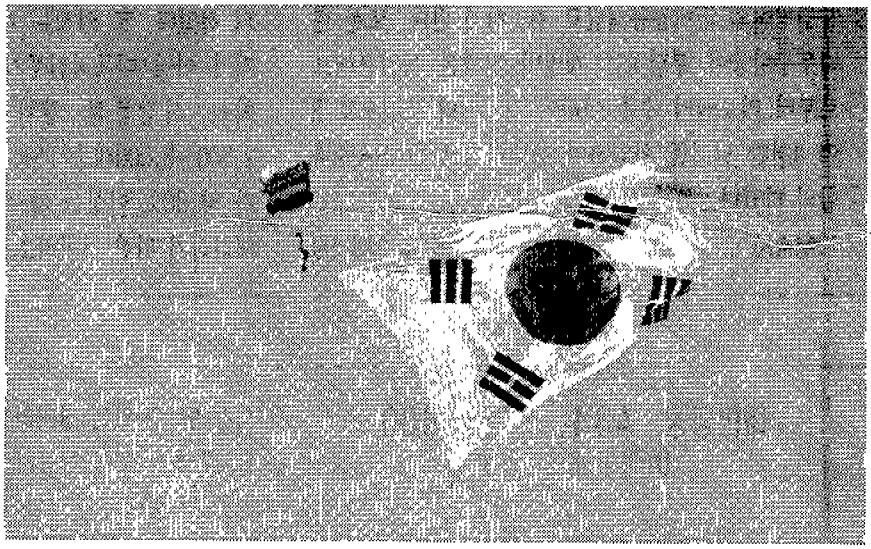
서울에어쇼98 성공적으로 개최

서울에어쇼'98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하늘을 날고자 했던 인류의 꿈은 21세기 미래사회에 가장 각광 받게될 최첨단 항공우주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항공우주전문기와 일반 관람객등 약 22만명의 발길이 이어졌던 이번 서울에어쇼98은 단순히 보여주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행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이끌어나갈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과 그 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세계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큰 몫을 하였다. 본지에서는 서울에어쇼98 일주일 행사기간을 정리해 보았다.



서울에어쇼 '98은 국제 비지니스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였다

서울에어쇼98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공군 주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주관으로 성대히 개최되었다. 국내 최초의 국제 에어쇼였던 96년 제1회 서울에어쇼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지난해부터 준비되었으나, IMF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반신반의했던 사람도 적지 않았다. 또한 몇몇 일반인들의 눈에는 에어쇼가 비생산적인 일반적인 쇼의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특히나 96년도 행사대비 60%의 예산속에 준비되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역으로 말하면 국제적인 행사를 96년 대비 60%의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한 행사였다. 또한 해외업체에 대한 행사장 임대료로 약 180만 달러의 직접적인 외화수입을 얻었으며, 행사개최에 따른 외국인들의 체류비용과 관광객들의 유치 등으로 약 900만 달러의 수입을 얻기도 하였다. 국내적으로는 부스 설치 등으로 관련업계에 고용창출을 하기도 하였으며, 행사기간중 이루어지는 계약체결을 통해 국내항공우주산업 경기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는 등 제2회 서울국제에어쇼는 명실상부한 경제에어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더 높은 하늘로, 더 넓은 세계로!

21세기 항공우주선진국 진입의 기틀마련,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교류 및 공군의 대국민 홍

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공군참모총장의 경과 보고에 이어 명예대회장인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리면서 행사는 시작되었다.

특히 개막식에 앞서 국내 최초의 자체 개발 항공기인 KTX-1 제막식이 열렸다. 국산 기본 훈련기 KTX-1은 1988년 개발에 착수한 지 10여년 만에 실용개발 시제기 제작을 완료하여 2000년에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비행기 자체 개발에 관한한 백지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 그리고 주 생산업체인 대우중공업과 여러 협력업체의 250여명의 연구진이 투입되어 개발이 추진되었던 KTX-1은 우리나라 항공기술의 향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행사 기간동안에 행사장을 찾았던 관람객은 국내외 VIP 약 1,000명을 비롯하여 총 22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당초 목표로 잡았던 50만명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 유수의 에어쇼와 비교하며, 또한 악조건의 기상상태를 감안한다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었다. 전년도 행사와는 달리 비즈니스 데이의 운영시 가급적 일반인의 입장을 제한하였기에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었다. 이와 함께 해외 주요국가의 국방, 통상관계 외빈, 해외 각군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39개국 주한대사관 관계자 등 정치,경제,군사,외교사절이 행사장을 대거 방문 하는 등 서울에어쇼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를 반영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국민들에게 항공우주산업을 널리 홍보할 수 있었던 이번 서울에어쇼에는 행사개막 이틀 전인 24일에 개최된 Press Day에 내·외신 취재진 250여명이 참석한 것을 포함해 행사기간 중에는 내, 외신 취재진 연인원 1천여명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규모

구 분			내 용
관 람 객			22만명
참 가 국			17개국
행 사 장	전시장	실내	11,600sqm(3만 5백평)
		실외	86,400sqm(2만 6천평)
	전시장외곽		170,000sqm(5만 1천평)
참가업체	국내		41개업체/243부스
	국외		114개업체/275부스
참가항공기	7개국 53기종 70대		전투기:30대, 지원기:40대

전세계 항공우주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들

실내전시장은 A,B,C,D 총 4개관으로 구성되어 각각 유럽관, 북미관, 한국관, 국제관으로 구분되었다.

유럽관 A동에는 최신예 전투기 라팔을 선보인 프랑스의 다소사와 유럽 항공 선두 기업중의 하나인 독일의 다사가 각종 항공기 모형을 전시하였다. 헬리콥터 제조업체인 유로콥터는 BO105, Super Puma의 모델을, 영국의 GKN 웨스트랜드는 EH-101, Lynx의 모델을 전시하였다.

에어버스는 A330, A321, A340-500, A340-600 등 각종 모델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여객기 디자인 모델로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BAe는 Hwake기 전방동체 Mock-up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으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프랑스의 아에로스빠시알과 시넥마, 항공전자 부문의 선두업체 GEC-MARCONI 등이 참여해 유럽의 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B동 북미관에는 록히드마틴이 F-16, AGM-142, F-22, KTX-2, JSF등의 모델을 전시하였으며, 민간항공기 제조업체인 봄바르디

전세계의 항공우주 기술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실내부스

어, 헬리콥터 제조업체 벨, 여객기 시장의 선두주자 보잉, 항공엔진 전문업체 Pratt & Whitney, Raytheon 등이 참가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과시하였다.

C동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4대 항공업체가 모여 우리나라 항공우주, 방위산업의 미래비젼을 제시했다.

대우는 한국형 기본훈련기 KTX-1의 실물모형과 다양한 항공부품을 전시하였으며, 삼성항공은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KTX-2 Mock-up과 8인승 쌍발헬기 SB427을 선보였다. 현대는 차세대 다목적 경전투기 MAKO Mock-up과, B-717 주날개, K1A1 전차 등을 전시하였다. 또한 LG정밀은 현무유도탄, 중어뢰 백상어 등 미사일과 항공전자전장비, KFP용 전자장비 등 각종 방위산업 관련 전자시스템을 선보였다.

우리나라 중소업체와 제3세계 업체들이 참가한 D동 국제관에는 아시아나항공, 기아중공업, 항공우주연구소, 한화기계, 한국로스트왁스를 비롯하여 많은 국내 항공우주 관련 업체들이 참여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다국적 정보통신 업체 에릭슨, 이스라엘 국방산업의 핵심인 IAI 등이 부스내에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스페인의 CASA는 외부에 독립부스와 대형 멀티미디어를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가을하늘을 수 놓았던 시범, 곡예비행

세계 각국의 항공기들은 화려한 비행기술로 가을하늘을 수 놓으며, 일반 관람객들의 눈길을 모았다.

프랑스 다소사에서 제작한 라팔은 360도 회전과 2회 연속회전 기동 등 다양한 기동을 자유자재로 선보이며 그 성능을 과시하였다. 특히 비오는 날씨 속에서도 시범비행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기본훈련기인 KTX-1 웅비는 초기 상승 능력과 급선회 기동, 수직기동, 배면기동 등으로 일반 관람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며 국내 순수 기술의 우수성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비행을 시작한 BO-105는 360도 회전, 급선회, 급강하 등 헬기로서는 일반관람객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범을 선보이며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였다.

서울에어쇼98의 하이라이트 블랙이글. 한국을 대표하는 비행팀 블랙이글은 약 15분간에 걸쳐 완벽한 팀웍과 기동력으로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18가지 기술을 뽐냈다. 특히 상공에서 연출하는 태극마크는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으며 곡예비행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F-16 시범비행, 지상 2,200m 상공에서 초대형 태극기를 펼치는 고공낙하, 각종 헬기시범비행, 경항공기 시범비행 등 다채로운 시범비행이 펼쳐졌다.

드넓은 야외 전시장에는 하늘에서의 위용을 그대로 간직한 항공기들을 포함 약 7개국 53개 기종 70대의 항공기가 전시되었다. 특히 수직 이착륙기인 해리어기와 고고도 정찰기 U-2기, 세계 최대의 헬기 Mi-26 헬기가 국내 일반 관람객들에게 첫선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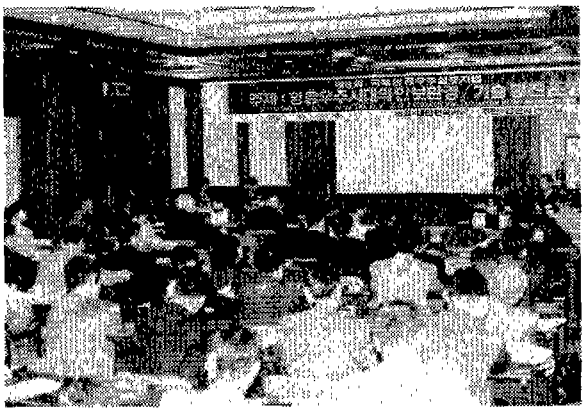
학술정보교류, 항공우주 심포지엄

COEX에서는 공군사관학교 주관으로 항공우주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21세기를 대비한 항공 우주력 건설과 기술발전 조망을 주제로 국내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학술 정보 교류를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4개 분과로 나뉘어 주제 발표자의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에어쇼 행사장 이외의 장소인 COEX에서 개최되었으나, 회의 전문장소로 각종 부대시설이 완비되어 심포지엄을 개최하기에 최상의 조건이었으며, 전자전/무기체계 세미나와 공동 개최함으로서 체계적 논제구성 및 참석자 홍보가 용이하였다.

경제에어쇼 서울에어쇼

에어쇼는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산업체들이 일정한 기간에 정해진 장소에 집결하여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거래를 하며, 기업간의 제휴, 합병 등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 작업들이 집결되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번 제2회 서울국제에어쇼의 큰 특징은 이런 목적에 부합되는 경제에어쇼로 자리 매김 했다는데 있다.


'21세기를 대비한 항공우주력 건설과 기술발전 조망'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항공우주 심포지엄

행사장내에 마련된 20개의 살레에서는 끊임없는 비즈니스 활동과 회의, 계약체결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계약으로는 대우중공업과 미국 보잉사와의 B777 프레임 500대분 수주계약과 함께 프랑스의 Aerostructure와는 A340-600 윙스트링거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한항공은 프랑스의 라떼꼬어와 에어버스 상부중앙동체 수주계약을 맺었다.

삼성항공은 미국의 노드롭그루만사와 걸프스트림 날개구조물 수주계약을 맺었으며, 헬리코리아와는 SB427 판매 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기아중공업은 영국 웨스트랜드사와 헬기용 랜딩기어 수주계약을, 현대우주항공은 독일의 DASA-LFK와 Pylon 탑재용 유도탄 접근경보장치 제작 및 아시아에 독점판매계약을 맺는 등 약 1억달러 가량의 경제적 성과목표를 540%나 초과하는 7건 5억4천5백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현대우주항공과 독일의 다사, 삼성항공과 록히드마틴, 대한항공과 미국의 시콜스키 등이 향후 사업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침체된 국내항공우주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국내 중소업체와 외국기업간의 비즈니스 논의가 활발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계약으로 성사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서울에어쇼가 2회라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5억 달러가 넘는 계약이 성사되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성공적이라는 호평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계약이 국내 주요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 개최되는 에어쇼에서는 외국 기업간에 계약 성사가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국제 에어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레스센터 내에 마련된 프레스컨퍼런스룸에서는 매일 세계적인 항공우주업체와 기관들이 자사를 홍보하였다. 특히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항공우주산업의 외국인 투자촉진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참가사 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기관이 관심을 끌기도 하는 등 각 언론사의 열띤 취재경쟁은 서울에어쇼98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프레스컨퍼런스룸에서는 매일같이 세계 유수 회사 및 단체의 설명회, 계약식이 개최되어 국내외 언론기관의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라팔의 날, 25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프레스데이, 환영리셉션 등 식전행사와 행사기간중에는 관람객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되도록 한다는 취지아래 소년소녀 가장·모범시민과 예매권자 중 선발된 시민들이 군용기를 탑승하여 인천상공까지 비행하는 행사를 갖기도 하였으며, 블랙이글 조종사 사인회 및 매일 군악대의 시범이 펼쳐져 관람객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새로운 지표를 열어준 서울에어쇼98

이번 서울에어쇼98이 파리에어쇼, 싱가폴에어쇼 등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어쇼에 비하면 규모나 내용면에서 미흡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제2회인 이번 행사는 1회 때의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하기는 하였으나, 운영상의 매끄럽지 못한 면도 더러는 들어 있었다. 더욱이 IMF로 인해 첫 출발에서부터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IMF체제하의 국가 신인도 회복에 기여하고 해외업체와 관람객을 최대한 유치하여 외화획득 등의 직접적인 성과와 한국항공우주산업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고, 공군의 대국민 홍보 등 여러면에서 다양한 부수적 성과를 얻었다.

향후 더욱더 발전된 행사를 위해서는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차기 행사 준비시 반영하는 것은 물론 국내항공우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KTX-1이 양산 체제에 돌입하고 KTX-2 개발사업, BO105 사업, 인공위성 개발사업 등과 함께 국제협력이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외국 기업의 참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에는 더욱더 발전된 에어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